

미국 “북한 ICBM 대비 첫 요격시험 성공”

〈대륙간탄도미사일〉

마셜군도 부근서 미사일 발사

태평양 상공 외기권서 격추

北 미사일 개발 속도 의식한 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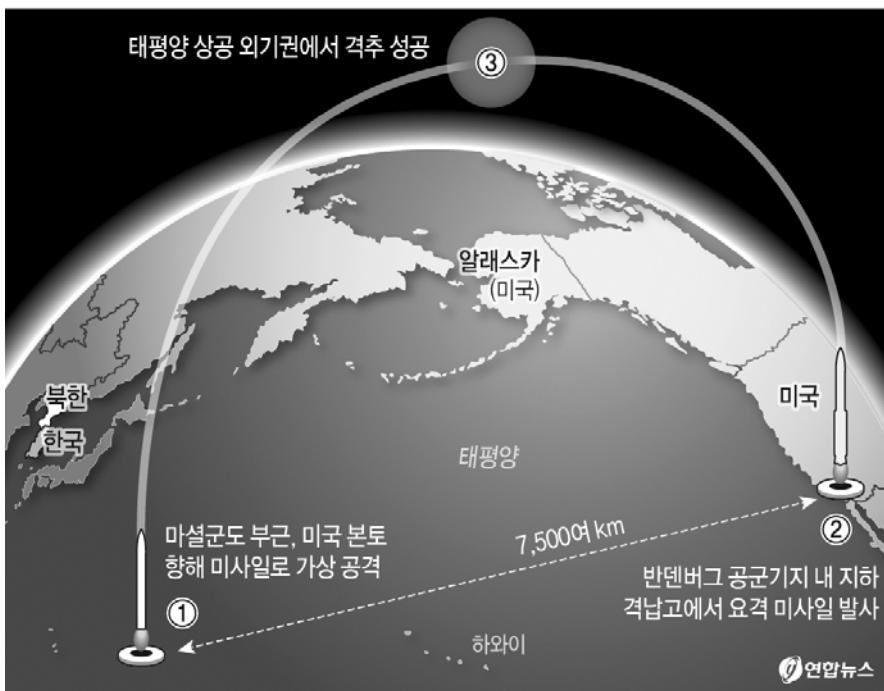
미국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공격에 대비해서 한 첫 요격시험에서 성공을 거뒀다고 미 국방부가 지난 31일(현지시간) 밝혔다.

미 국방부는 이날 성명에서 미 본토에 대한 ICBM 공격을 가정한 요격시험을 실시했으며, 태평양 상공에서 가상의 ICBM을 격추했다고 밝혔다.

요격시험은 태평양 마셜군도 부근에서 미 본토를 향해 미사일로 가상 공격을 하면, 캘리포니아 주 반덴버그 공군기지 내 지하 격납고에서 요격미사일을 발사해 태평양 상공 외기권에서 격추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미 국방부 미사일방어국(MDA)에 따르면 실제 ICBM 모형 대신 기존 미사일보다 비행 속도를 한층 빠르게 만든 ‘맞춤형’ 미사일을 표적으로 사용했다. 차후 ICBM 모형을 이용한 시험 단계로 나갈 예정이다.

미국, 북한 ICBM 대비 첫 요격시험 성공



표적 미사일은 마셜군도 부근 환초(環礁) 좌절된 미사일 시험장에서 발사됐다.

요격은 요격미사일에 실린 5피트(1.524m) 길이의 ‘요격체’(kill vehicles)가 표적

을 직접 타격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MDA의 짐 실링 국장은 “이번 실험은 매우 실질적인 위협에 대응해 우리가 신뢰할만한 억지 수단을 갖추고 있다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시험은 북한이 향후 ICBM을 개발해 미 본토를 공격하는 상황을 가정한 것이다. 미국이 북한의 ICBM 공격 방어를 위한 요격시험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이 지난 14일 최대 사거리 4500~5000km의 준(準)ICBM인 ‘화성-12형’ 시험발사에 성공하고, 향후 2~3년 내 미 본토 타격이 가능한 ICBM 개발에 성공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개발 속도가 빨라지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미 국방부는 캘리포니아와 알래스카에 이미 배치된 요격미사일의 숫자를 현재 36기에서 올해 말까지 44개로 늘릴 예정이다.

그러나 AP통신은 이런 성과에도 불구하고 2억4400만 달러(2742억여 원)가 소요된 이번 실험이 전시 상황에서 북한이 발사한 ICBM급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한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북한은 ICBM에 핵탄두를 장착할 능력에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미국의 요격미사일을 교란하기 위한 유인용 미사일을 개발할 수도 있다고 AP는 설명했다.

연합뉴스

사드보고 누락 파문...美 “배치 과정 투명”

中 매체, 보수진영 주도 제기

미국 국방부는 지난 31일(현지시간) 문재인 대통령이 주한 미군이 배치한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4기의 반입 사실이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은 데 대해 진상조사를 지시한 것과 관련, 미국은 배치 과정을 투명하게 절차를 거쳤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프 데이비스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우리는 사드 시스템의 배치와 관련해 한국 정부와 계속 매우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며 “배치 과정 내 한 모든 조치가 매우 투명했다”고 말했다.

데이비스 대변인은 “사드는 현재 초기(요격)능력만 보유하고 있으나(요격) 중복성을 부여하도록 추가할 부가(요격)능력이 있다”면서 “우리는 이를 추진하고자 한국 정부와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드배치와 관련 중국 관영매체들은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반입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진상조사 지시를 주요 뉴스

로 보도했다.

한국시보는 정치적 과정이 확대될 수 있으며 군부 인사에 ‘지진급’ 변동은 촉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또 사드 장비 추가반입 보고누락 사건의 과정이 한미, 한중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했다.

한국시보는 문 대통령이 사드를 철회한다면 한미동맹에 중대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지만, 사드 배치를 기정사실화한다면 ‘적폐정산’을 의지하는 문 대통령은 정치적 부담을 안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대선 기간에 사드 발사대를 비밀리 반입한 것은 안보이슈를 정치화하려는 보수세력의 계산이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홍콩 봉황망도 문 대통령이 사드 배치 대 추가 반입에 진노했다는 기사를 주요 뉴스로 보도하며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봉황망은 이날은 국무총리 후보자가 25일 박근혜 정부에서 이뤄진 사드배치 결정을 조사하겠다고 말했다는 점을 상

연합뉴스

중국 언론, 美시험 성공 관심

“북한 지목 이례적” 강조

중국 매체들은 미국이 북한의 ICBM 공격을 상정해 실시한 첫 요격시험에 큰 관심을 나타냈다.

신화통신은 이날 미 국방부 성명이 발표되자마자 미군이 태평양 마셜군도 부근에서 미 본토를 향해 발사한 미사일을 요격 미사일을 발사해 태평양 상공 외기권에서 격추했다는 내용을 속보로 내보냈다.

통신은 곧이어 후속 기사를 통해 탄도미사일 격추 기술의 복잡성과 그동안 미국이 17차례 미사일 요격시험을 진행해 9차례만 성공했다는 내용 등을 그래픽과 함께 자세히 소개했다.

관영 CCTV도 이날 아침 뉴스에서 요격 시험 관련 소식을 3쪽지로 편성해 집중 보도했다.

CCTV는 요격시험 성공 소식과 함께 미국이 이례적으로 북한을 지목해 이번 실험을 진행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자매지인 환구시보(環球時報)도 미국 현지 언론들을 인용해 미국의 요격시험 성공이 지난 2014년 6월 이후 3년 만이라고 소개했다.

홍콩 봉황TV와 중국신문망(中國新聞網) 등도 요격시험 장면과 함께 비행 속도가 빠른 ICBM을 격추한 것에 대해 의미를 부여해 보도했다.

연합뉴스



아프간 외교단지 자폭테러 80명 사망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의 외교관 구역에서 지난 31일(현지시간) 오전 차량을 이용한 자폭테러가 벌어져 최소 80명이 숨지고 350명이 다친 가운데 한 부상자가 구조를 기다리고 있다. 폭탄테러에 주카불 한국대사관 건물 일부도 파손됐지만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의 외교관 구역에서 지난 31일(현지시간) 오전 차량을 이용한 자폭테러가 벌어져 최소 80명이 숨지고 350명이 다친 가운데 한 부상자가 구조를 기다리고 있다. 폭탄테러에 주카불 한국대사관 건물 일부도 파손됐지만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죽을 때까지? 결혼 서약 신중합시다”

영국 학자 ‘100세 시대’ 결혼 유지 기간 재고해야

근래 과학과 의학의 발전으로 인간 수명이 급속도로 늘어나면서 ‘죽을 때까지’라는 결혼 서약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영국의 전문가가 주장했다.

결혼 기간이 과거보다 크게 늘어나면서 평생 해로에 대한 관념이 예전 같지 않다는 지적이다.

수십 년은 모르지만 이를 넘어서는 너무 긴 결혼 생활이 과연 부부간 서로에게 행복하지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더타임스와 텔레그래프 등 영국 언론에 따르면 영국 옥스퍼드대의 노년학 전문가인 새러 하퍼 교수는 최근 추세에 비해 인간의 수명이 120~130세에 달할 수 있다면서 이렇게 될 경우 결혼 생활이 최장 100년에 달할 수도 있으므로 수명 연장이 결혼 생활에 큰 영향을 주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하퍼 교수는 웨일스 지역에서 열린고 있는 연례 문예축제인 헤이 페스티벌에서 강연을 통해 근래 인간의 수명은 매 10년마다 2년 반씩 늘어나고 있으며 이는 매일 같이 6시간이 늘어나는 셈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노화와 긴 수명이 갖는 의미를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그는 강조했다. 하퍼 교수는 역사학자 마이클 앤더슨의 조사를 인용해 근래 영국에서 부부간의 사별은 감소하는 반면 이혼은 증가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과연 적절한 결혼 기간이 얼마 동안인지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영국 통계청에 따르면 현재 영국에서 출생하는 신생아의 절반은 104세까지 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수명 연장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은퇴 기간이 ‘현역’ 기간보다 길어지면서 연금 부담이 크게 늘어나며 노년대에 대한 개념 자체도 완전히 바뀌게 될 것으로 하퍼 교수는 전망했다. 1970년대에는 유령인들이 은퇴 후 평균 10년을 생존했으나 2000년대 들어서는 이 기간이 22년으로 늘어났다.

수명이 100세를 넘어서는 상황을 맞고 있는 만큼 은퇴와 노후 생활, 사회 복지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재평가가 불가피하다는 하퍼 교수의 지적이다.

연합뉴스

지리산 온천지구내 K호텔

깨끗하게 새단장 했습니다!
정성으로 모시겠습니다.

숙박문의 H. 010-3605-5000
061-783-8090

대형호텔 매매·동업

- 구례군 산동면 관산리 732-1번지
지리산 온천지구내 송원리조트 바로 앞
- 대지 572평 건물 718평
지하1층, 지상 4층, 객실 58개
- 1층 - 식당 / 세미나실/객실
2~4층 - 객실
- 전체 리모델링, 6월10일 오픈예정
- 시세/감정가 - 17억
매매 - 14억 5천만원 (조정가능)
- 동업 - 협의 (경험자우대)
- 용자 8억 포함, 법인체 인수 가능
주인직매 H. 010-3605-5000